

9

이달의 섬 9월의 알쓸섬 제주 추자도

추 자 도 모 세 의 기 적 다 무 래 기
절벽 위 치솟을 듯한 아찔한 길 나뉘른 하늘길
제주에서 가장 높은 올레길 추자 올레 18-1



알고자 하는 섬, 욕지도

욕지도는 열화열도를 이루는 섬 중 가장 큰 섬이에요. 임금에게 진상할 목적으로 욕지도에서 사슴을 많이 키웠는데 이 때문에 '녹도'라고도 불렸어요. '욕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로 처음에는 욕질도, 이후 욕지도로 이름이 변해 지금까지 욕지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욕지도를 한자로 풀이하면 '알고자 하는 섬'인데요. 무엇을 알고자 했는지 섬을 방문해 찾아보면 어떨까요?

제주에 속해 있지만 전라도와 더 친한 추자도

추자도의 옛 이름은 후풍도였다고 합니다. 후풍(候風)은 '순풍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추자도는 풍랑을 만난 뱃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어요. 추자도는 1910년대까지 전라남도에 속한 섬이었으나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제주시로 편입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라도 방언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섬, 연평도

‘연이어 뻗친 땅’이라는 데에서 이름 붙여진 연평도는 정전 협정 당시 북한에 넘어간 황해도의 관할권에서 제외된 ‘서해5도’ 중 하나로 북한과 매우 가까운 섬이에요. 북방한계선과 인접해 있는 탓에 북한의 도발에 여러 차례 피해를 입기도 하고 연평해전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아픔이 있는 만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섬이기도 하답니다.

11

이달의 섬 — 11월의 연평도

응진 연평도

배배옹 절벽 | 올굴바위 | 평화공원

배배옹이 탐험한 절벽과 비슷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배배옹 절벽
보는 위치에 따라 다섯 가지의 얼굴 표정을 볼 수 있는 올굴바위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조국의 영웅을 추모하기 위한 평화공원

소리도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연도

연도는 섬의 모양이 술개같이 생겼다 하여 소리도로 불렸어요. 주민들은 여전히 소리도가 익숙해 지금도 소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위 박물관’이라 할 만큼 다양하고 아름다운 바위와 동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바위와 동굴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10

이달의 섬 — 10월의 하계섬

통영 욕지도

고향어가 살피는 10월에 개최되는 욕지섬문화축제
절벽 사이의 풍경이 아찔한 재미를 주는 올방다리
왕왕의 세말이 침이 되었다는 전설이 얹힌 섬에



12

이달의 섬 — 12월의 양계섬

여수 연도

연도 등대 | 대룡단·소룡단 | 보물섬

100년 넘게 남해바다 길잡이로, 연도 등대
용의 머리와 꼬리까지 이어진 바위, 대룡단과 소룡단
숨겨둔 보물이 가득하다는 전설이 내려져오는 보물섬



‘이달의 섬’의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한국섬진흥원
공식 SNS(인스타그램 : 오하섬,
페이스북 : 섬소집)에서 찾아보세요.

© 인스타그램(오하섬)
https://www.instagram.com/daily.island_official/



f 페이스북(섬소집)
<https://www.facebook.com/island.issue.delivery>

